

맛있는 봄

완벽히 객관적인 시상식이란 없다

기고



김 두 기
시인

갓 맛이 배기 시작한
봄날에는
쫄깃쫄깃한 사랑을 먹고 싶다

봄바람으로 뜰 들이고
잘 데친 춘심으로
마음을 씹어먹고 싶다

한동안 자리 잡았던
겨울바람을
마음의 아궁이에 넣고 불 지핀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푸른 연기는
향긋한 냄새로 온 사방에 번진다

너처럼 새롭게
맛있는 설렘으로 당신 안에서
군침 고이는 사랑을 하고 싶다

시 감상

꽃샘추위가 가끔 시비를 걸어도, 봄은 입춘과 우수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시인은 신춘의 감흥을 ‘갓 맛이 배기 시작한/봄날에는/쫄깃쫄깃한 사랑을 먹고 싶다’라고 노래하면서, 봄맛이의 설렘과 소망을 음식에 비유해 맛있는 시 한 상을 차렸습니다. ‘마음의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푸른 연기’처럼 봄의 ‘향긋한 냄새’가 ‘온 사방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냥 읽고만 있어도 봄날의 이미지가 싱싱한 식탁 위에 펼쳐진 듯한 맛을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청각→시각→후각→미각으로 전달되는 이미지가 산뜻하게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는 우리 신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시가 독자에게 전하는 생각과 의미를 관념이라고 하는데, 이 관념을 육화한 것이 이미지입니다. 형상(形象)이라고도 합니다. 몸으로 느끼는 구체화된 서정이란 뜻입니다. 루이스(C. D. Lewis)는 이미지의 역할을 신선감, 강렬성, 환기력 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감각이 형상화된 시를 읽으며 기쁨과 슬픔의 서정을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겨울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맛있는 설렘으로 당신 안에서/군침 고이는 사랑을’ 하는 봄날을 기대합니다.

차용국 시인·문학평론가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일보

발행인 박창식 편집인 이길호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71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디지털기획팀	디지털뉴스 02-2079-3710-4	군947-3710-4
	국방저널 02-2079-3715-6	군947-3715-6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군947-3730-42
	사진 02-2079-3761-4	군947-3761-4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군947-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91-4
광고문의	02-2079-3123	군947-312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는 3월 14일, 미국에서 제63회 그래미 시상식이 열린다. 음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고 월드 클래스 무대들이 예정돼 있지만 올해는 시상식을 둘러싼 분위기가 날카롭다. 지난해 후보 발표 때 2020년 최대의 히트메이커인 위켄드를 어떤 분야에도 후보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켄드의 4집 ‘애프터 아워스(After Hours)’는 그래미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매체가 주목한 작품 중 하나다. 순위의 정도엔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위켄드가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를 잡은 활동을 했다는 데는 대부분이 이견을 달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미만 위켄드를 빼놓았다. 위켄드는 “그래미는 부패했다”는 트윗을 올려 선정위원들의 안목을 조롱했다.

위켄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그래미는 세계적 권위의 음악 시상식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때로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실수를 해 신뢰성에 의심을 받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열풍의 결정적 해인 2013년에 아비지·스크릴렉스 같은 쟁쟁한 후보들과 함께 알 월서라는 무명의 프로듀서가 ‘최우수 댄스 음악’ 후보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 일렉트로닉 씬의 흐름에 관심 없던 그래미 회원들이 알 월서의 꾸준한 홍보에 설득돼 전혀 대표성 없는 음악을 후보에 올린 것이다.

조명탄



이 대 화
음악 저널리스트

‘최우수 댄스 음악’ 분야는 특히 잡음이 많았다. 2001년에 바하 멘의 ‘후렛 더 도그스 아웃(Who Let The Dogs Out)’은 “그냥 재밌는 노래”라는 세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명작으로 꼽히는 모비의 ‘내추럴 블루스(Natural Blues)’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리믹스 분야는 전체 투표가 아닌 선발된 소수 전문가끼리 후보를 결정한다. 그래미 회원들이 전체적으로는 리믹스 분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운영자들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성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특정 장르에 대한 편견도 늘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레드 제플린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록 밴드 중 하나로 칭송되지만 전성기에 단 한 개의 그래미도 가져가지 못했다. 힙합도 그래미의 꽃인 ‘올해의 앨범’ 분야에선 지금까지 한 번의 수상에 그쳤다. 하도 논란이 많자 그래미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투표인단의 인종, 연령, 성별 비율

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나이 든 백인 남성’ 위주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유색 인종, 여성, 젊은 회원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너무 늦은 대처라는 비판은 여전히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투표가 폭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지금은 물러난 과거 그래미의 CEO 데버러 더건은 일명 후보 검토위원회가 친하거나 비즈니스 관계인 아티스트에게 투표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후보검토위원회는 회원들의 전체 투표 결과를 검토해 최종 후보 리스트를 결정하는 중간 기구다. 비전문성이 끼어들 여지가 많은 전체 투표를 최정예의 안목으로 한 번 필터링하는 것이다. 신뢰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절차겠지만 위원회 명단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데다 3분의 2를 걸러내는 막강한 권한을 가져 늘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그래미의 찬사 받을 측면들도 있다. 종사자 및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2만 명 가까운 회원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넘사벽’ 클래스다. 매년 화제인 세계적 수준의 무대 연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취약점들을 아울러 바라볼 때 더 정확하게 수상의 의미를 짚을 수 있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히 전문적인, 완벽히 객관적인 시상식은 없다. 그래미도 마찬가지다.

유일한 중대장

견장일기



손 준 호
육군2공병여단 선공대대·대위

“내 중대원으로 복무해 줘서 고마워.” 내가 전역하는 용사들에게 건네는 한마디다. 꽃다운 20대 초반, 아침 기상 후부터 저녁 취침 전까지 수많은 규율과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청춘을 바친 용사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전입 후 16~17개월을 하루하루 함께 이겨낸 우리 용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중대장과 중대원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렇게 나의 중대원들을 사회로 돌려보내며 두 번째 중대장을 하고 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면, 대다수 용사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런데 1차 중대장 임기를 2개월 남긴 어느 날, 군 생활 내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힘들어하면서도 매사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에 항상 마음이 쓰였던 한 용사의 대답은 용사들에게 건넨 한마디와 그날 이후 군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한 중대장으로 근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소(신교대)를 수료한 후 우리 용사들은 자대에서 평균적으로 16~17개월을 근무한다. 중대장의 보직 기간은 최소 18개월이기에 취임 후 1~2

개월 이내에 전입해 오는 용사들은 복무하는 내내 1명의 중대장만을 만나게 된다. 즉, 어떤 용사들에게는 1명의 중대장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중대장이 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전역 전 휴가를 포함한다면, 취임 후 4~5개월 이내 전입하는 용사들이 해당할 것이기에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중대장이라는 그 용사의 한마디에 ‘나는 과연 어떠한 중대장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용사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중대장이었을까?’, ‘그 용사가 중대장이라는 단어를 보고 무엇을 떠올리고 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던졌다.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다.

하루하루 함께 군 생활을 하는 부하이자 전우인 우리 중대원들에게 무심히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현재 그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같이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중대장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용사들은 복무 기간에는 지휘관의 명을 받지만, 전역 이후에는 다시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 된다. 따라서 우리 지휘관들은 용사들이 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했는지, 또 용사들에게 참군인의 모습을 보였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 중대장에 취임한 지 13개월이 지나고 있다. 취임 이후 전입한 용사들이 곧 전역 전 휴가를 나갈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중대장으로 기억될까? 오늘도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제 군을 떠나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우리 중대원들에게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내 중대원으로 복무해줘서 고마워. 중대장과 함께한 군 생활이 조금이나마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